16-1 // 제프 쿤스는 포르노 여배우를 모델로 하거나 여배우하고의 생활을 작업으로 해서 가장 통속적이면서 가장 키치적인 것을 순수미술로서 보여준 작가.

이 작품이 미술사에서 영원히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런 작품이 등장했을 때 많은 미술사가들과 비평가들이 한 때의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 But 2000년대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1980년대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사람들은 그당시에 모더니즘 미술이 남긴 엘리트주의에 굉장히 지긋지긋해 함. 작가들이 고상한 척, 대중들을 이끄는 리더인 척.. 자신의 자아를 대중들(관람자)에게 강요하는 듯한 것에 지겨움. 영웅 인재 양성 그와 같은 엘리트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사회에 의해 지겨워하고 있었음.

엘리트->비엘리트, 주변부(무시, 천박, 혐오스럽다고 하는 아주 통속적인 것) 으로 눈을 돌림

유치하고 천박한 것도 고급스러운 것하고 대등한 계급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줌.

키치적! 키치->쉽게 구할 수 있고.

22) 제프 쿤스 <속된 것을 받아들이다> 1988 / 제프 쿤스 <마이클 잭슨과 버블> 1988 //

싸구려 시장통에 있는 것 보여줌. 시장통에서 사서 뒤샹처럼 보여주기도 함. 자신이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함.

뒤샹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 예술의 신성시 그런 전통에 대해 뒤샹이 조롱. 그와 같은 개념도 쿤스 가짐. 그러나 조롱 이라는 개념 보다 **상업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더 강함.

대중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가격이 싸야하고 단기적 제작 가능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But 모더니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대중의 속성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오니 싸구려 대중적 통속적인 것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 대중을 이용한 상업시스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제프쿤스).

27) 제프 쿤스 <리본 묶은 달걀> // 설치작품. 신세계에서 구입. 오늘날까지도 인기있다는 증거.

가장 대중적 키치적 싸구려 같은 것이 상업시스템내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시험해서 성공.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른 현상으로서 **페미니즘 미술**.

모더니즘 미술이 백인남성중심.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변부(여성 제 3세계 유색인종)로 관심 확장. 그 것을 끌어내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1971년에 페미니즘 미술의 첫 시작. 린다 로크린 교수가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 라는 에세이 발표. 페미니즘 미술의 공식적 시작 알리게 됨.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

구석기 시대 벽화 남자만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but 편견이어서 그런지 남자가 그렸다 생각.

16c 누드화 발달 했지만 여성은 누드화 못그림.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었음.

🡪여성이 진출하기 힘든 분야.

모더니즘 미술은 유난히 남성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음. 페미니즘 미술이 등장하면서 뉴욕을 중심으로하는 미국 동부에서는 남녀평등을 표방. 서부에서는 여성 특유의 여성만의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

28) 오드리 플랙 <여왕> 1975-76 // 자몽 여성 성기 상징. 트럼프 퀸 카드.

29) 주디 시카고 <디너 파티> 1974-79 // 각 변이 정삼각형. 큰 작품. 서른 여섯개의 자리가 마련. 서른 아홉명의 역사 속의 위대한 여성들을 초대했다.

크레타 섬의 최초의 여신 - 인류 역사에서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보다 앞섰다.

하트셉수트 - 이집트 통치.

30) 프리다 칼로 <상처 입은 식탁> 1940 //

31) 테오도라 황비와 시녀들, 547, 라벤나 산 비탈레 성당 // 비잔틴 시대의 통치자. 시녀로부터 시작해서 황비가 됨.

32) 아르테미지아 젠틸레스키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1614-20 / 33) 카라바지오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17세기 // 공통점 :

차이점 : 카라바지오 - 목이 잘리는 남성에 초점. 드라마틱한 생애. 자신과 동일시.

젠틸레스키 -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자르는 여성에 초점.

17세기 가장 유명한 화가. 가정교사로부터 그림 배움. 어느 날, 가정 교사로부터 성폭행->고발->조사 후 판결이 젠틀레스키가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했다. 오히려 여자가 받음.

거기서 남녀차별과 자신의 분노를 느끼게 됨. 그래서 이 그림 그리게 됨.

그래서 페미니즘 미술에서 여성의 동등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낼 때 이 그림 인용.

오키프 <밝은 아이리스> 1924 / 오키프 <노란 선인장 꽃> 1929 // 남편 덕 많이 봄..

순전하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어려움..

34) 신디 셔먼 <무제> 1992 //

**중심에서 주변으로** – 여성, 유색인, 동성애자, 제3세계 등의 주변부 미술이 중심으로 이동.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 – **남성적 시선을 심층부터 파헤침. 영화스틸 사진 이용**.

여성의 성기 감추어야 하고, 불결하고, 남자의 에로티시즘을 자극하기 위한 것🡪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당당하고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줌.

샤피로 <연자주색 팔랑개비> 1979 / 폴록 <No.3> 1949 //

여성의 공예가 순수미술과 대등해야 한다는 자각. 염색을 이용한 작품 등장. 염색, 퀼트 그 자체로서 보여주려 함.

오른쪽은 모더니즘 미술 – 백인 남성의 자아를 드러내는 데 주력. 르네상스 이후로 오늘날 유럽여전히 남성 중심 이나..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시작되면서 여성의 공예품 그와 같은 것이 순수미술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줌.

마티스 - 하나의 순수미술 특성에 하나의 패턴으로 이용.->한계..?

30) 프리다 칼로 <상처 입은 식탁> 1940 //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페미니즘 미술로 다루어지기도 함.

But 프리다칼로 작가 자체가 페미니즘 미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NO

모더니즘 미술이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보편성을 지향. 중심. 미술을 위한 미술(추상). 비장식성

포스트모더니즘은 반엘리트주의. 개별성 강조. 주변부. 구상, 이야기의 회복. 장식성. 키치적, 싸구려 적인 모든 것 받아들임)